

‘尹정부 1년’ 기업 제도 좋아져 가장 개선 된 분야 ‘노동부문’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 대상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 묻는 질문에
산업부문 19.2%, 조세부문 17.8%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시급 ‘숙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제도·정책이 개선됐다는 경영계 평가가 나왔다. 노동 부문은 제도·정책이 가장 많이 개선됐지만 동시에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등이 개선이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평가가 줄을 잇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관련 제도·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

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했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을 들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과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과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 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희망의 집짓기’ 사업 시멘트 전량 후원

아세아-한라시멘트
한국해비타트와 23년째 후원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한국해비타트의 ‘희망의 집짓기’ 후원을 23년째 이어간다.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는 2023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쓰이는 시멘트와 드라이몰탈 전량을 무상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각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 아세아시멘트 본사에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라시멘트는 지난 2001년부터 업계 최초로 한국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사업에 사용하는 시멘트 후원을 시작했다. 이후 한라시멘트가 아세아시멘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2018년부터는 양사가 함께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물류비를 포함해 시멘트, 드라이몰탈 전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 여름에는 희망의 집짓기 광양 건축 현장에 임직원 및 가족들이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왼쪽)가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과 후원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세아·한라시멘트

자원봉사로 참여해 희망의 손길을 나눌 예정이다.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임경태 대표는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지속적으로 후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봉사 활동에도 두 회사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 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승호 기자



‘인터zum 2023’에 마련한 LX하우시스 전시관 전경.

SK매직, 쿠쿠홈시스와 ‘특허 소송전’ 돌입

손해배상액 청구·판매금지 촉구
얼음정수기 ‘4 way valve’ 기술
쿠쿠홈시스 “기술 방식 달라”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이달 초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기술은 자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특허 제 10-2464193호’로 얼음정수기에 4-way valve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SK매직 얼

음정수기는 해당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2019년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특허 권리 행사를 위해 쿠쿠홈시스에 판매 금지 경고장 발송 및 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후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자사의 특허를 지키기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

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소송 제기에 대해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e의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받았지만 당사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다”면서 “게다가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 차이점이 분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상호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X하우시스 ‘친환경’ 가구용 필름 유럽 공략

獨 ‘인터zum 2023’서 70여종 선보

LX하우시스가 유럽 가구용 필름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가구용 필름이란 가구 소재인 합판(MDF/PB) 표면에 붙여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LX하우시스는 지난 9일부터(현지 시간 기준)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인터zum 2023’에 참가해 친환경 및 고기능성 가구용 필름 70여종을 선보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zum’은 1959년부터 시작한 가구기자재 전시회로, 올해에는 전세계 가구원부자재·가구가공설비 관련 16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성과 자원 재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제품 ‘바이오 쉴드(BIOSHIELD)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지속가능성(ESG for sustainability)’을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국내외 시장에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과 여기에 더해 표면 코팅층까지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혼합 적용해 친환경성을 극대화한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이 유럽 가구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홍콩 여행’ 공짜 항공권 2.4만장 풀린다

관광 활성화 위해 16일부터 시작

홍콩국제공항(HKIA)은 한국의 여행객들에게 2만4000여장 이상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콩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홍콩을 방문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총 50만 장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홍콩국제공항(HKIA)의 ‘월드 오브 위너스(World of Winners)’ 글로벌 항공권 증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홍콩의 네 개 국적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 홍콩익스프레스항공, 홍콩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이 분담해 홍콩행 무료 항공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과 제주, 부산에서 출발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이 증정된다.

무료 항공권 당첨자들은 홍콩에서의 숙박과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즐



홍콩국제공항 전경.

/홍콩국제공항

길 수 있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홈앤쇼핑, ‘소비자 중심 경영’ 강화

CCM 위원회 발족식 진행

홈앤쇼핑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한다. 홈앤쇼핑은 지난 1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CCM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홈앤쇼핑 CCM위원회는 소비자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하고 전사 관점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의사결정기구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성한 경영지원본부장 겸 최고고객책임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실행력 높은 협업과 개선 활동을 위해 실무 담당 팀장급을 위원으로 뒀다.

CCM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사 관점의 소비자중심경영 활동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활동 전개 ▲소비자중심경영 성과에 대한 포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